

건강 칼럼

위장 건강 지키려면 정기적 내시경 검진으로 꼼꼼히 체크해야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 만성피로, 스트레스, 올바른 식습관 및 생활습관 등으로 각종 소화기질환을 앓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역류성 식도염, 스트레스성 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들은 겉으로 봤을 때 꽤 비슷한 증상을 가져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병변의 위치와 정도 등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의 경우 초기 증상이 없고 작은 소화기 문제를 방치할 경우 암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아 반드시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내시경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내시경은 소화기 질환 상태를 의료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가능한다.

소화기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대표적 비침습·최소침습적 기술로 꼽히는 내시경 검진은 크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으로 나눌 수 있다. 검사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할 경



심향우
일산심내과의원 원장

우 약 95% 정도의 완치율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이 중 특히나 대장내시경은 검사 중 발견한 대장 용종을 검사와 동시에 제거까지 가능하다.

정기적 검진이 중요한 내시경 검사. 그렇다면 얼마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을까 먼저 위내시경은 2년에 1번씩 받길 권한다.

단약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1년에 1번씩 받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대장내시경은 50세 이상일 경우 5년에 1번, 용종이 발견됐거나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1년~3년에 한 번 정도로 의료진과 협의하여 받을 수 있다.

간혹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 자체가 몸에 무리가 같 것이라 오해하는 이들이 있는데, 건강에 해가 되거나 무리가 가지 않는다.

다만 몸에 소화기 질환 및 암 질환을 의심해 볼만한 증상이 없다면 자주 검사를 해도 질환 발견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불필요한 검사를 할 필요는 없고 증상이 있다면 진단에 따라 검사 기간과 상관없이 내시경 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

또 수면내시경 진행 시 사용되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큰 경우 검사 결과에 따라 1년~3년에 한 번 정도로 의료진과 협의하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자이거나 중증심장질환자, 폐질환자, 만성호흡기질환자, 뇌졸중 및 중추신경계질환자의 경우 의료진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수면내시경 전에는 반드시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하며 검사 후에는 의료진 안내에 따라 병원에서 충분한 휴식 후 이동해야 한다. 가능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무리하지 않길 권하며 일주일 정도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거친 음식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다.

이어서 장거리 이동 계획이 있다면 작전에 수면내시경 검사는 피하고 위내시경 후 속쓰림, 대장내시경 후 남은 가스로 복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소화기질환은 흔하다 보니 소화제 등에 의존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암, 대장암은 국내에서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인 사실을 잊지 말고 정기적 내시경 검사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우선인 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사설

어느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전북 도내 어느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비난을 사고 있다. 해당 회사는 최근 10년 동안 급격히 성장해서 올해 재계 순위 31위까지 올랐다.

그런데 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이들의 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개인회사는 2012년 총수인 회장이 자본 100%를 장남에게 물려준 회사다.

당시 해당 개인회사는 자주 지분을 사실상 회장보다 많이 갖고 있어 2세 승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회장이 회사를 증여한 직후부터 그룹 계열사들이 조직적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해당 기업은 2012년부터 계열사 5곳이 아들 지회사 제품만 사 쓰도록 했다.

유통 과정에도 참여해 이중으로 이윤을 남겼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계열사에서 구매하는 약품 비중이 2배 넘게 늘었고, 32억

원가량이 지원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계열 회사들도 부당 지원에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회사들이 서로 참가제를 직접 구매해 왔는데, 아무런 역할이 없는 아들 회사를 끼워 넣어 단가의 약 3%를 남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동행세'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2년부터 5년 동안 600억 원 규모의 거래에 참여했고, 17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다.

해당 그룹 계열회사들은 동일인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인 하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공정위는 그룹 차원의 점폭적인 지원으로 7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이 다른 계열사에서 넘어갔으며, 아들 개인회사와 계열사 8곳에 모두 48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그룹은 부당한 지원이 아니라고 소명했는데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졌다며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어느 대학의 점수 조작

도내 어느 국립대에서 열린 무용대회에서 심사위원들의 점수 조작으로 1등과 2등 학생의 순위가 뒤바뀌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19년, 해당 대학 무용학과가 주최한 전국 무용 경연대회 현대무용 종목의 체제표에는 5만 참가자가 총점 284점으로 1등, 1번 참가자가 283점으로 2등을 차지했다.

하지만 1등상인 대상을 차지한 것은 2등 점수를 받은 1번 참가자였다. 결과 발표 직전, 1번 참가자에 대한 어느 교수의 평가가 92점에서 96점으로 교차져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당시 점수 조작 의혹은 최근 재판에서 전부 사실로 드러났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심사위원인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교수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체제 완료 직후 해당 교수가 다른 교수에게 점수 수정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수가 무용학원 원장의 청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8년 동안 열린 경연대회에서 해당 학원 출신 6명이 대상을 받으며 사실상 수상을 싸움이 해왔다. 대회 직전 해당 원장이 1번 참가자의 대회 참가 사실을 교수에게 간접적으로 알린 것은 사실상 청탁이라고 판단됐다.

대회가 끝난 직후 공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또 다른 학생이 원장과의 통화 뒤 저학년 부문의 수상자로 뒤늦게 포함됐다는 의혹 제기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해당 교수는 학원장들을 통해 공연 티켓을 강매해 수익을 창출해 왔던 사실까지 드러나는 등 지역 무용계를 좌지우지 해왔다.

재판부는 교수가 한 행동이라고 짐작하기 힘든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써가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학 측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징계 절차는 물론 학생의 피해를 바로잡는 문제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시체꽃 보자' 샌디에이고 식물원 입장권 매진



지난 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엔시니타스에 있는 샌디에이고 식물원에서 관람객들이 '시체꽃'으로 더 잘 알려진 희귀한 이모르포팔루스 티타눔을 구경하고 있다. 현지 관계자는 이 꽃이 지난달 31일 개화하기 시작했으며 시신 색의 냄새가 나는 이 꽃을 보려는 관람객들이 1일 오전 입장권이 매진됐다고 밝혔다.

'인디언스' 역사 속으로... 클리블랜드 사인판 철거



2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직업자들이 전광판에 설치됐던 '인디언스' 로고를 철거하고 있다. 미프로야구(MLB) 클리블랜드 구단은 인종 차별 논란이 됐던 '인디언스' 로고를 철거하고 새 구단명인 '가디언스'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